淨化特輯

社會淨化운동의 理念과 方向

"職場敎育에는 恒常 業務處理의 公正性을 强調해야"

第4章 社會淨化 敎育의 方向

○…(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자신의…○
○…本分遂行보다는 사소한 이익에 혈안…○
○…이 되거나 출세에 신경을 쓰는 그릇…○
○…된 職業意識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발견한다.…○

독일의 학자 베버의 말처럼 작업은 곧 神의 召命처럼 느끼는 職業觀이 절실하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敎育者는 젊은 세대들을 건전하게 길러내고, 의사는 환자를 보살피고, 각종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한다는 本分을 잊어버리고, 출세를 위해 또는 돈을 위해 아니면 대우가 좋지 못하다고 不平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발견하게 된다. 올바른 職業倫理의 內面化는 産業社會인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課題의 하나이다.

셋째로, 職場敎育은 업무처리의 公正性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職場에 있어서 正直과 秩序의 理念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요인인 것이다.

어떤 직업,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업무는 다른 사람과 항상 연관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리고 業務結果에 의해서 영향받은 사람은 대체로 여러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公正하지 못한 業務處理란 곧 비합리적이며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취급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人脈이나 金錢的인 유혹에 의해서 公正性을 잃었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不信과 不滿을 유발시키며 결과적으로 그 조직의 단결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公職者의 경우에는 사사로운 경우보다 그 피해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公正한 일처리가 더욱 요구된다.

社會淨化運動의 1단계작업에 의해서 많은 비양심적 公職者들이 제거되었지만 아직도 그 潛在的인 要素와 구조적인 矛盾이 완전히 除去되었다고는 볼수 없다. 따라서 公職者를 포함한 모든 職業의 종사자들이 原理原則에 입각해서 각자의 業務를 공정히 처리할 때만이 올바른 社會紀綱이 確立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職業과 職責에 따른 公正한 보수의 개념을 확립해야 하겠다. 보수란 곧 자기가 노동을 통해 組織을 위해서 기여한 데 대한 댓가인 것이다. 근로자는 자기가 받은 보수를 탓하기 전에 자기가 기여한 일의 성과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인은 非合理的인 보수체계로 근로자들의 不滿을 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물론 公正한 보수체계의 確立은 社會的인 課題이다. 公正한 보수체계는 正義社會具現의 핵심적인 要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분명히 나은 待遇를 해주어야 하며, 일의 어려움이 크거나 공헌도가 클수록 더 나은 待遇를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會社내에서 일반적으로 事務職을 우대하고 技術職을 낮게 대우하는 現實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 변호사 등 專門職業人과 企業主가 얼마만큼 자신이 기여한 일에 비례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專門職業人의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評價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의 成果에 비해서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기업주들의 노력도 평가되기 어렵지만 社會的 형평에 어긋나게 보수를 받아 大衆의 질시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專門職業人과 企業人을 위한 職業敎育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봉사하며 公正한 보수를 받는다는 職業倫理함양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職場淨化運動은 多樣한 형태의 敎育手段을 통하여 직장 책임자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반성하고 부정적인 要素를 제거하면서 새로운 職場倫理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다함께 노력하는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正義와 常識이 통하는 職場이 못되고 淨化運動을 빙자하여 건설적인 비판을 억압하려는 기도는 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職場淨化運動은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産業民主主義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敎育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課題와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직장의 고유 業務處理와는 달리 職場淨化를 위한 敎育은 하향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즉 간담회나 토론모임에서 등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어 協同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한 職場敎育이 성공적인 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장의 간부들 자신이 敎育內容에 어긋남이 없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4、社會敎育

社會敎育의 범위는 통상 學校敎育 이외의 모든 敎育을 통칭하나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家庭敎育、學校敎育 그리고 職場敎育을 제외한 모든 敎育을 포괄하여 다루기로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言論界、宗敎界、그리고 文化界의 정화운동은 사회교육의 방향에 유의하여 推進하는 것이 기대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이나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획득하게 된다. 또한 대중매체나 문화활동은 현대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더구나 現代와 같이 복잡하고 기계화된 사회에서 宗敎가 갖는 정신교육적 역할이 지대한 것이다. 나아가서 의학의 발달에 따라 老人人口가 많아짐에 따라 老人敎育도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다. 새 헌법에 平生敎育조항이 명시됨에 따라 社會敎育法 등 관계법안이 제정됨으로써 보다 본격적인 社會敎育이 전개되리라 본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신혁명을 시도하는 사회정화운동의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言論界、文化界、宗敎界의 사회교육적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우리가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 現代社會로서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大衆文化의 특성문제이다. 근대기술의 발달로 국가간의 文化文流는 갈수록 밀접해지고 통신매체의 발달은 世界를 하나의 문화권으로만 들어 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실적 여건에 맞게 재창조하기도 전에 과도한 외래문화의 직수입으로 사회의 문화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둘째로、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다양하다. 그러나 사회정화적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사회의 전통적 社會倫理에 익숙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都市社會에 옮겨와서 民主市民답게 행동하고 近代的 經濟倫理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화적 갈등 뿐만 아니라 大衆社會的 성격에서 오는 소외감과 무책임감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느끼며 國民統合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세째로、기술발전과 巨大組織의 발달은 도시문화의 영향이 농촌지역까지 직접적으로 미침으로써 농촌사회의 고유한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회사、방송기관、문화단체 등이 만든 都市的 文化의 産物이 획일적으로 농촌까지 침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現代社會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며 개인적 생활의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시인들이 텔레비전을 큰 오락수단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매체는 그 메시지의 일방성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소외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現實속에서 볼 때、바람직한 社會敎育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바람직한 교양을 주어야 하며、나아가서 새로운 社會倫理의 확립을 위해서 사회교육에 직접·간접으로 연관된 언론계、문화계、종교계의 계몽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활동이 획일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창의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망되는 것이다. 특히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大衆媒體는 그 社會敎育的 役割을 보다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날 우리의 文化界 一部에서 외국작품의 소개 또는 번역、모방에 급급하거나 국민의 정신교양을 위한 봉사보다는 營利에 급급한 예도 없지 않았다. 종교계도 교회나 사찰안에서 고고한 哲學과 倫理를 부르짖었으나 울타리 밖의 사회상에 대하여 무관심한 면이 많았다고 본다. 일부 문화단체나 종교단체는 파벌싸움이나 부쟁탈에 휘말리는 예도 허다하였다. 언론기관도 정부기관이나 사회의 문제들을 신랄히 비판하면서도 言論이 너무나 상업적이거나 또는 언론인 자신들의 능력향상이나 사회적 역할 인식을 위한 노력을 등한히 한 바 없지 않다. 건전한 國民運動을 표방하고 있는 많은 사회단체들도 國民運動보다는 자리와 利權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제 사회정화운동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때、국민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각급 조직이나 단체들은 자체의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식 혁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계、문화계、종교계、그리고 사회단체들도 자체의 고유한 임무수행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중심으로 社會敎育的 役割을 이행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첫째로、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가정교육의 重要性을 일지만 父母를 再敎育시키는 手段은 社會敎育뿐이다. 우리나라의 家族은 傳統的 대가족제도에서 근대적 소가족 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과도기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의 그릇된 가정교육 方式을 고칠 뿐 아니라 가정내에서의 民主的 人間關係 그리고 새로운 倫理觀 確立등을 간접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로、社會敎育은 건전한 經濟倫理를 確立하는데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우리의 經濟成長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으나 사람들의 經濟意識은 구태의연한 면이 허다하다. 허례허식을 추방함은 물론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創意性을 존중하며 새로운 職業倫理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轉換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셋째로、産業社會에 요구되는 건전한 市民倫理를 함양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급격한 도시화와 교통수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촌락사회적인 社會倫理를 지니고 있거나 젊은 世代들은 入試爲主의 敎育에서 온 폐단으로 傳統的 社會倫理나 近代的 社會倫理、그 어느 것도 제대로 確立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오늘날 都市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交通秩序를 위시하여 준법정신이나 각종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市民倫理의 함양 없이 참된 民主發展을 기대할 수 없다. [illegible] 교단체와 각종 社會團體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連載 栽培敎室

新規會員을 爲하여

향부자 = (香附子)

藥用部=뿌리

效用=鎭靜、鎭痙、通經 등 婦人科의 요약

1、性狀

사초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草本이다. 줄기는 60cm 내외에 달하며 밑은 둥글고 윗쪽은 세모(三稜)가 졌다. 잎은 어긋나게 붙었고 그 밑은 집(鞘)이 되어 줄기를 안고 있으며 그 길이는 45cm 정도이며 線形이다. 논 밭에 많이 나는 방동산이 풀과 흡사한 藥草이다.

2、栽培法

1、栽培適地

濟川道에서는 圃地에서 월동이 되므로 한번 심으면 밭에 묵히어 재배할 수도 있으나、中南部地方에서는 겨울에 뿌리가 얼어서 죽으므로 매년 다시 심어야 한다.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나 우리나라 중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된다. 慶尙北道 高靈郡과 京畿道 平澤郡은 香附子의 주산지이다. 토질은 푸실푸실한 과히 걸지 않은 砂質壤土 또는 砂質土에 재배하는 것이 수확이 노력이 적게 들어서 유리하며、끈기가 있는 壤土 또는 肥沃한 땅에 재배하면 잘 되기는 하나 뿌리를 수확하는데 흙이 잘 털리지 않아서 노력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대개는 과히 걸지 않고 다른 作物이 잘 되지 않는 砂質土 등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것이 보통이다.

2、繁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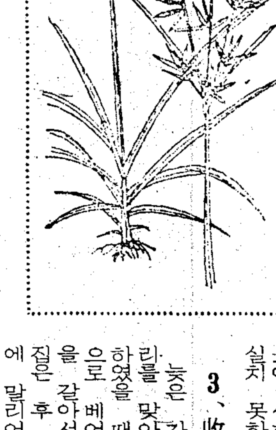
뿌리(根莖)로서 번식한다. 種根을 저장하는 방법은 추위에 대단히 약하므로 얼지 않게 저장한다는 것이 문제인데、主産地 등지에서는 아궁이 앞을 1m 정도 깊이 파고 種根을 마른모래와 첩첩이 넣고 흙을 덮어서 저장하기도 하며、묻힌 곳의 貯藏溫度가 섭씨 10도 이상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3、定植

㉮定植時期=中部地方에서는 4월20일경、南部地方은 4월10일경이 적기이다.

㉯種根量=本圃 10a에 대하여 60kg 내외이다.

㉰定植方法=土質에 따라서 植付距離에 차가 있으나 보통 이랑사이 30cm의 골을 치고 포기 사이 20cm 간격으로 3~4개씩 놓고 흙을 덮어준다. 肥沃한 土質에서는 포기사이를 30cm 이상 두어도 가을에는 포기가 퍼져서 전부 뿌리가 얽히게 된다.



4、管理

심은 뒤 20여일이 되면 싹이 튼다. 풀을 매어 가꾸면 8월경에는 심은 골을 분간할 수 없게 포기가 많이 퍼져서 온 밭이 香附子 莖葉으로 가득차게 되며 뿌리도 온 밭에 엉키게 된다.

5、施肥・病虫害

中等地 이상 土質에서는 별로 施肥하지 않아도 잘 되며、中土質 이하 토질에서는 堆肥 700kg、過石 20kg、草木灰 40kg을 밑거름으로 施肥하고、生育狀態를 보아서 1~2회 약간의 [illegible]름을 시비토록 한다. 施肥量이 너무 많으면 莖葉의 徒長이 심하고 뿌리도 충실치 못하다.

3、收穫・調製

늦은 가을 莖葉이 서리를 맞아 누렇게 변하였을 때에 莖葉을 낫으로 베어버리고 밭을 갈아서 뿌리를 뒤집은 후 3~4일 별에 말려 쇠스랑 등으로 툭툭 쳐서 뿌리만 쇠갈퀴로 긁어모은다. 다시 수일동안 별에 잘 말리어 불을 놓아 잔털을 그스는데 불이 골고루 붙게 하여 잔털이 타거나 또는 잔털이 없도록 한다. 그 후 충분히 말린 후 반지 섞여 털어 까불려서 조제한다. 收穫量은 보통 10a 當 150kg 내외이고、잘 되었을 때에는 300kg에 달하기도 한다.